

성경은 예수 그리스도

1. 요절 : 마태복음 1:1

“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”

2. 찬송 : 나의 사랑하는 책(찬송가 199장)

3. 해설

혼탁한 세상을 밝힐 등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.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성경은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. 이번 계절학교를 통해서 성경의 소중함을 깨달으며, 성경의 초점과 개요를 학습한다. 성경을 사랑하고, 성경을 읽고, 성경대로 실천하는 천국일꾼을 양성한다.

☺ 활짝마음 1

— 성경 속 생각나는 이야기는 무엇이 있나요. 서로 얘기해봐요. ^^

☺ 활짝마음 2

“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의 계보라” (마1:1)

📖 쏙쏙 성경

주제 1. 메시아의 가족

🗣️ 말씀 - 함께 읽어요

마1:1 “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”

❖ 설명 - 선생님께 귀를 기울여요

예수님은 가족이 누구일까요? 예수님도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들이 계십니다.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특별한 출생으로 이 세상에 나셨습니다. 우리와 모든 것이 같지만 한가지 다른 것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죄가 없으십니다.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면서 우리와 같은 가족을 주셨고,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실 수 있었습니다.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.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의 가족,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.

❖ 괄호 안에 들어갈 말씀을 찾아서 채워보세요.

마1:18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()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()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

❖ 서로 맞는 성경구절끼리 찾아 연결해 보세요.

빌2:6 •

-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

사7:14 •

-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

요1:12 •

-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

주제 2. 성경은?

▣ 말씀 - 함께 읽어요

딤후3:16-17 "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"

▣ 설명 - 선생님께 귀를 기울여요

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40여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통하여 무려 1600년에 걸쳐서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.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많은 사람과 그 긴 기간동안 성경이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은 한결같이 똑같다는 것입니다. 그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죄인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구약시대 수천년동안 메시아 곧 구원자를 예언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약속을 성취하였습니다.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. 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▣ 괄호 안에 들어갈 말씀을 찾아서 채워보세요.

요1:14 "()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()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"

☞ 서로 맞는 성경구절끼리 찾아 연결해 보세요.

마24:35 •

-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

행16:31 •

-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

고후5:17 •

-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

☞ 함께 나누어요

- 텔레비전, 컴퓨터 게임, 인터넷, 학교, 학원 등등 바쁜 일정속에 살면서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기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?

☞ 함께 기도해요